

GTX-B 가평·춘천 연장, 본선과 '30년 동시개통 가능해진다

- 지자체 요청('24.9)에 따라 원인가부담사업 타당성 검증 본격착수
... 제6차 민생토론회(1.25) 당시 국민과의 약속, 차질 없이 추진 중

- GTX-B(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 '30년 개통목표)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대통령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된 GTX-B 연장 건설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9월 가평군·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가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
- 타당성 검증은 가평군,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토대로 국가철도공단(국토부 위탁)에서 약 9개월간 진행*한다.
 -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원인가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철도건설사업도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사업시행 가능
 - 타당성 검증이 계획대로 '25년 상반기 중 완료되면 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간에 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후, '30년 GTX-B 본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설계·시공 및 차량발주 등을 추진한다.
-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은 GTX-B 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과 춘천까지 총 55.7km를 추가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 B 연장 : 인천 송도 ~ 남양주 마석 ⇒ 마석 ~ 가평 ~ 춘천 55.7km 연장

- 그간 가평군, 춘천시 등 관련 지자체는 연장사업 추진방식, 사업내용 등을 협의해 왔다.
 - 지난 8월 GTX-B 본선과 동시 개통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선 국토부의 타당성검증을 받기로 경기도와 강원도도 동의함에 따라 관련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 GTX-B 사업이 춘천까지 연장되면 기존 최대로 1시간 30분이 소요되던 춘천~청량리역 구간이 약 5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 이는 가평과 춘천 지역 주민들의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GTX 역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거점에 우수한 인력과 새로운 투자수요를 유입시켜 경기 동부권과 강원권의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전략추진단	책임자	단 장	이경석 (044-201-4166)
		담당자	기획팀장	이은영 (044-201-4161)
			사무관	장형석 (044-201-4164)
			주무관	하유정 (044-201-4165)